즉시 배포용: 2016년 8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렌셀러에서의 가솔린 유출에 대한 주정부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갑작스런 정전 후에, 대략 **600** 갤런의 가솔린이 렌셀러 항구에서 유출되었습니다*

주지사는 토요일 밤과 일요일 동안 강력한 폭풍이 계속되므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600갤런의 가솔린이 유출된 렌셀러 항구의 벅아이 터미널에 대해서 주 환경보존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오늘 지시했습니다. 연료는 이 지역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진행되는 동안 갑작스런 정전 후에 그 방제 장비가 고장나면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은 현재 2차 방제를 통해 통제되고 있으며, 주 환경보존부 담당자들이 방제 및 청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사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안전과 우리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며, 오늘 밤의 유출 사고는 이미 방제가 되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행정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오늘 밤 내내 이 유출 사고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사고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주 환경보존부의 유출대응팀이 렌셀러 카운티 위험물질처리팀 및 지역 비상서비스기관들과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제 및 대응 조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준비되는 대로 제공될 것입니다.

강력한 폭풍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 주민들의 주의 당부

렌셀러에서의 사고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폭풍이 진행되는 동안 정전에 의해서 야기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번 폭풍이 진행되는 동안 주의할 것을 뉴욕 주민들에게 재차 당부했습니다. 폭염 경보에 추가해서, 국립날씨서비스에서는 이번 주말 동안 대부분의 뉴욕주에 대해서 소나기와 강력한 뇌우를 예보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비, 거센 바람과 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번개 사고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네시 카운티에서 번개를 맞은 후 2명이 사망했고, 금요일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번개로 인해 5명 중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